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9월 6일(수) 총 4매	
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	담당자	• 기획운영팀장 차영주 ☎420-2710 • 담당자 정수산나 ☎420-2736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국내 유일, 더블베이스 듀오를 인천에서 만나다
<2023 커피콘서트 VII 성민제×최진배 ‘두 대의 베이스로 만드는 세상’ >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문화예술회관은 더블 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재즈 베이스리스트 최진배가 함께하는 <커피콘서트> 무대가 오는 9월 20일(수) 오후 2시 인천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.

인천문화예술회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대표 프로그램인 <커피콘서트>를 지난 7월부터 원도심인 동구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러 왔으며, 9월 무대는 관객들과 세 번째로 만나는 시간이다.

이번 공연에서는 두 대의 베이스로만 연주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독보적 매력을 가진 그룹 콘트라스트(성민제, 최진배)의 관점에서 바라본 음악을 전한다. 바흐의 ‘인벤션’, 베토벤의 ‘엘리제를 위하여’,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‘왕벌의 비행’ 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레퍼토리를 더블베이스 연주로 편곡해 오직 두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드넓은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.

오케스트라에 속한 현악기 중 가장 낮은 음역대를 내는 더블베이스는 묵묵히 제 몫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악기들을 위한 화음과 리듬의 기초가

되어준다. 이러한 더블베이스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익숙한 레퍼토리와 함께 전함으로써 다른 악기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온전하고도 독보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.

콘트라스트(성민제, 최진배)는 각자 주력 분야의 최정상에서 활발히 활동 하던 더블베이스 아티스트 두 명이 세계 최초로 의기투합한 그룹이다. 더블베이스 고유의 매력을 알리고자 클래식·재즈·대중가요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수많은 선율의 색깔 및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.

성민제는 만 16세란 어린 나이에 세계적 권위의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 석권,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콩쿠르 최연소 아시아인 우승 등 천재 더블베이스스트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는 아티스트이다.

최진배 또한 버클리 음악대학과 뉴욕대학교에서 재즈 퍼포먼스로 학위를 수여 받은 후 재즈부터 클래식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실력 있는 연주자다.

2008년에 시작해 관객 8만여 명과 함께하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가 된 <커피콘서트>는 매달 한 번,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관객들의 환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.

일상 속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<커피콘서트>는 관객들에게 텀블러나 머그잔 등 다회용 개인용품 지참을 권장한다. 공연 전·후 로비에 준비된 커피는 개인 컵에 제공하고 있으며 준비하지 못한 관객은 공연 종료 후 커피를 받아서 귀가할 수 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문화체육센터 누리집 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

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관람료는 전석 1만 5천원이다.

문의) 인천문화예술회관 ☎1588-2341

2023 커피콘서트Ⅶ. 성민제×최진배 “두 대의 베이스로 만드는 세상”

- 일 시 : 2023년 9월 20일(수) 오후 2시
- 장 소 :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
- 관 람 료 : 전석 1만5천원
- 관람연령 : 8세 이상
- 공연문의 : 인천문화예술회관 1588-2341
- 주최/주관 : 인천광역시/인천문화예술회관, 동구청

[붙임1] 관련 사진





성민제



최진배



성민제 × 최진배